

임용시험 후기

2003학번 선연택(편집)

응시지역: 광주(2004년 12월)

근무지역: 체육고

임용시험 후기에 관한 글을 부탁 받았을 때 망설임 없이 그러겠다고 했지만 ‘이 글이 얼마나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며 혹여나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 그러나 2년 전 막상 임용시험을 준비하려 했을 때, 도움이나 조언을 얻을만한 자료의 부재에 대한 안타까움과 막막함을 떠올리며 이 경험담이 임용준비를 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조심스럽게 이 글을 연다.

광주(2005년 기준)의 임용시험은 크게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으로 구성되어있다. 1차 필기시험은 전공과 교육학으로 구분되고 2차 실기시험은 첫째 날-교육학 논술과 면접, 둘째 날-지도안 작성, 전공 서술, 수업시연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전공시험은 교수법, 영어학, 일반영어, 영문학 등 전반적인 지식들을 묻는다. 물론, 교육학 시험 또한 교육학의 전반적인 지식을 평가한다.

구분	영역		내용	점수
1차 (필기시험)	전공		영어학, 일반영어, 영문학 등	80점
	교육학		교육학 전반	20점(40문)
2차 (실기시험)	1일째	교육학 논술	주제에 관한 글쓰기	20점
		개별면접	5문제	10점
	2일째	지도안 작성	주어진 교과서 지도안	10점
		전공서술	영어교수에 관한 에세이 작성	10점
		수업시연	전개부분 시연	10점

전공시험은 우선적으로 기본적인 영어실력을 체크하는 일반영어 문제가 출제되었다. 전공문제(영어학, 영문학) 또한 지문의 내용을 잘 이해하면 답을 쓸 수 있는 일반영어 형태로 출제되기도 했다. 2005년 영문학 문제인 “The Road not Taken”이라는 시의 순서와 rhyme을 묻는 문제나 “변별도”에 관한 글의 내용을 묻는 문제 등은 일반영어 실력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임용시험에서 일반영어능력은 중요하다.

답안을 작성하는 형식면에서, 2004년 일반영어문제의 경우, 너무 다양한 답안들이 나와 채점에 애를 먹어서인지, 2005년 시험에서는 답이 명확한 문제들이 출제되었다. 예를 들어 “지문에서 틀린 형용사나 부사 3개”라는 단서를 주거나 “종속 접속사를 이용한 것은 답안으로 인정하지 않음”이나 “4단어로 고쳐 써라” 등의 단서를 주어 모호한 답의 양산을 피하였다.

2005년 임용시험의 특징을 살펴보면 답안 작성 시, “몇 자 내외로 작성하시오.”가 아니라

교육학 면적은 관련 서적 하나를 구입해서 서로 묻고 답하기 형식으로 연습해본다. 특히, 현재의 제7차 교육과정에는 관한 문제, 교육학과 관련한 문제, 현실에서 교사로서 경험할 수 있는 문제, 자신의 교육철학에 관한 문제 등이 출제된다. 교육학 논술도 주제들에 관해 원고지에 글 쓰는 연습을 해보면 시험을 치를 때 익숙하다.

2차 시험에서 전공분야는 수업지도안 작성과 영어논술, 수업시연 이렇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영어논술은 토품의 예제이 형식과 같다고 생각하면 된다. 평소에 토품 예제이 쓰기를 조금만 해보면 부담이 적다. 수업지도안 작성 준비는 관련 수업이 있다면 수강하고, 없다면 고등학교 교과서 하나 사서 지도안 작성하는 연습과 지도안에 맞춰 수업 실연하는 연습을 해봐야 한다. 그리고 동료가 있어 서로 피드백 해주면 더욱 좋다.

교육학은 항상 집으로 다간다. 또한 전공에 비해 비중이 크지 않아 스콜하기 쉽다. 하지만 응용시험 당락이 소수점으로 결정된다고 생각하면 교육학 한 문제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교직에서 배웠던 내용은 응용을 준비하기에 너무나없이 그 양이 적다. 테잎이나 방을 정리잡이 살아 꾸준히 준비할 수밖에 없다. 가끔 교육학을 바라치기처럼 시험 몇 일전 에 집중해서 공부하는 사람이 있는데 별로 좋은 생각은 아니다. 교육학도 꾸준히 공부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문제풀이 방충은 하나쯤 들어주는 것이 좋다.

일반영어는 시간을 정해 놓고 꾸준히 풀어야한다. 스스로 영어실력을 키우는데 주력하면서 시험을 준비할 때에는 정해진 시간 내에 얼마나 정확한 논지를 파악하고 주제를 파악하느냐 에 초점을 맞춰 풀어본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스티디를 이용해 서로 답을 쓰는 패턴이나 답을 쓰는 요령 등에 대해 이야기 해보는 것이 좋다. 이 과정을 통해 많은 학습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답을 쓰는 요령들을 키워갈 수 있다.

그 밖에 AMLT와 APPL를 더 보는 사람도 있고, 물론 그 이상의 책들을 보는 이도 있을 수 있다. AMLT의 내용은 교수법의 흐름과 최근 교수법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또 다. 시간이 있으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나는 시간이 별로 없어서 AMLT만 조금 참고 했다. AMLT의 내용은 교수법의 흐름과 최근 교수법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또 한 교수법이 어떻게 교실에 구현되어지는가를 구체적으로 묘사해 놓아 교수법 용어의 이해를 돕어준다. 인터넷 방송에서 만든 문제들이 이런 여러 책들에서 발췌해 연습하게끔 출제

를 풀어준다. 인터넷 방송에서 만든 문제들이 이런 여러 책들에서 발췌해 연습하게끔 출제

영어로 공부에 왕도가 없듯이 응용시험 준비에도 정해진 방법은 없다. 당시 나는 정년 전에 서도 많이 뒤져있었기 때문에 무작정 학부에서 배웠던 책들을 읽어 들었다. PLT와 TLT를 때 여러 번 정독했고, 그 후로도 필요할 때마다 찾아 봤다. "An Introduction to Language"와 "English Syntax"라는 책도 수업 중에 배운 것을 토대로 필요할 때마다 찾아 보는 식으로 준비했다. 그리고 인터넷 방송을 한 가지는 수강해서 기본 틀을 잡았다. 방송교재와 원서를 참조하면서 읽다보면 어느 정도 내용의 틀이 잡힌다.

몇 줄로 주어진 답지에 채우는 형식으로 되어있다. 또한 지문 안에 답의 단서가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그래서 오히려 어렵게 생각하면 틀릴 수도 있다. 또한 Syntax문제가 많이 출제되었고 영어학 문제는 음성/음운론 문제가 출제되었다.